

제사비요(祭祀備要)

성균관 전례사典禮師 소능能素 권정택 權貞澤

제사(祭祀)의 유래

제사를 지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먼 옛날 사람이 원시적인 생활을 할 때 천재지변이나 사나운 맹수 등의 공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늘과 땅 심수(深水), 거목(巨木), 높은 산, 바다, 조상 등에서 절치를 갖추어서 빌었던 것이니 이것이 제사가 발생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자연변화나 어떤 공격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져 온 제사는 중세와 근세에 이르러 차츰 유교적인 조상숭배의 제도로 변하여졌으나, 그 대신 유교적인 번잡한 절차와 자연숭배의 미신적인 의식이 높아지므로 가정마다 연간 제사를 지내는 횟수가 무려 48회 이상이 나되었다.

제례(祭禮)는 상례(喪禮)와 마찬가지로 그 의식 절차(儀式節次)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옛날부터 유학자(儒學者)나 예문가(禮文家)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논쟁이 많았을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제사는 고래부터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빙고자 하는 의례로서 자연숭배의 제사의식이 행하여졌다. 삼국시대부터 자연신에 대한 제사가 자신의 조상에 대한 제사의례로 발전하였으며 일반 민중보다 왕가에서 먼저 행해졌다. 고려 말에 성리학의 수입과 더불어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를 설치하려는 운동이 사대부 사이에서 활발해졌으나 사실상 가묘가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불교 의례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주자가례”와 같은 유교 의례가 사회 전반에 쉽게 보급되지 않았다. 16세기 중엽부터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양반 사대부 사회에서 “주자가례”가 정착하게 되고 주자가례에서 명시된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표시로 행하여지고 있다.

제례수상(祭禮隨想)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는 말도 많고 형식절차도 가지가지이다. 옛날에는 이 논란으로 조정 정사(政事)가 어지러워졌고 학자와 선비들이 점잖지 못하게 파당을 지어 생사(生死)를 걸은 싸움질까지 하였을 정도이다. 그러나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는 우리나라 사례(四禮)의 모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였다.

가례(家禮)에는 조석상식에 불용주(不用酒)라 하였고, 퇴계(退溪) 선생은 ‘유(有) 주(酒) 여든 헌 일작(獻一酌)’이 가(可)라’ 하였고, ‘상식(上食)에 입곡(立哭)이요 무배(無拜)는 효자지어친(孝子之於親)’에 매신창아이무배고(每晨唱爺而無拜故)로 불인이 신사지고야(不忍以神事之故也)라’ 하였는데 단(但) 사망(朔望)에는 보통상식과 달리해서 설전(設奠)하므로 헌 일작(獻一酌)하고 재배하고 사신(辭神)에 재배한다. 상주가 장전(葬前)에는 현작(獻酌)을 타인을 시켜 대전(代奠)하는 것은 장전 불관세(葬前不洗携)가 예유명문(禮有明文)이므로 불결한 것을 꺼림이라 하였다(사계소언(沙溪所言)) 혼백(魂帛)은 비단으로 동심결(同心結)을 맺어서 장례(葬禮) 전에 영훈이 의지할 곳을 만드는 것인데 하관후(下棺後)에는 광중(壙中)에 매안(埋安) 하는 것이며, 송우암(宋尤庵)은 동심결(同心結)이 상고시대에 음남 음부(淫男淫婦)가 정표(情表) 하는 매듭이라 해서 친한 것이라 하여 폐지하고 세포(細布)로 사통오달(四通五達)로 접도록 하였다. 가주(假主)는 밤나무로 신주(神主)를 만든다. 상고시대에는 시동(尸童)이라고 칠(七), 팔(八)세 된 어린이를 신위로 앉히고 제사를 지냈는데 나무로 만든 신주로 대신했고, 작

금에 와서는 밤나무로 조주(造主)를 아니하고 백지(白紙)를 목주(木主)와 같이 접어서 글씨를 써서 신위(神位)로 모시는 것도 가주(假主)라 한다.

우(右)가 동(東)이니 동고(東高) 서비(西卑)라 해서 생전에는 남우녀좌(男右女左)로 설석(設席)이 되고, 사후(死後)에는 서고(西高) 동비(東卑)로 남좌(男左) 여우(女右)가 되니 그 이유는 일월출몰(日月出沒)이 이동위시고(以東爲始故)로 양계(陽界)에는 이동위수(以東爲首)하고 산수지세(山水之勢)는 서하동향고(西下東向故)로 음계(陰界)에는 이서위상(以西爲上)이다.

예문(禮文)에 조손(祖孫)이 부동장(不同杖)이라 하여 승중상(承重喪)에 증조(曾祖)가 생존하시면 무장(無杖)이요. 부상(父喪)에 조부(祖父)께서 생존하시면 유장(有杖)이지만 동도(同途)에서는 집장(執杖)하지 않는다. 제반(祭飯)을 통칭(通稱)‘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도 나라말이다. 불교(佛教)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불전(佛前)에 올린 밥을 머라 하였기 때문에 제사(祭祀)에 올리는 밥도 머라고 해서 공통어가 된 것이다. 일본(日本)에서 밥을 머시라 하고 쌀을 고매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말이다. 종부(宗婦)가 만일 친가부모(親家父母)의 상복을 입었으면 제삿날에 임시로 옥색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

고, 비위(考,妣位)를 각 단설(各單設)로 해서 한 분만 제사하는 집도 있고 합설(合設) 해서 내외를 함께 지내는 집도 있으나 단제(單祭)는 예지정(禮之正)이요, 합제(合祭)는 예지정(禮之情)이라 하였으니 단제(單祭)건 합제(合祭)건 모두 좋으나, 대다수(大多數)가 합제(合祭)하고 있다. 동유설(東儒說)에 ‘묘소(墓所)에 절사(節祀)는 불가(不可)하다’라고 역설(力說)한 분들이 많은데 그 답변에 ‘안자사 어제후(顏子使於諸侯)라서 반국전묘이입(返國奠墓而入)’ 하였으며, 춘추전국(春秋戰國) 시에도 묘제(墓祭)가 있었고, 맹자(孟子)에 ‘동과파간지제(東郭播間之祭)에 취포이귀(醉飽而歸)’라 하는 말이 있으니 육국시대(六國時代)에도 있었으며, 장양(張良)의 자손이 ‘어곡성(於穀城)에 명사황석(並祀黃石)’이라 하였으나 서한시(西漢時)에게도 있었고 ‘한무제령제장(漢武帝令諸將)으로 사소우제분묘(賜小宇祭墳墓)라’ 하니 자고(自古)로 묘제(墓祭)가 있었던 일이다.

율곡(栗谷)은 말하기를 ‘분향(焚香)과 강신(降神)

에 합해서 한 번만 재배하고 참신(參神)에 재위자 개재배무방(在位者皆再拜無妨)이라’ 하였다. 예문(禮文)에도 ‘재불 분향(再不焚香)인즉 분향을 청신(請神)이니 강신(降神時)에 한 번만 하고 한 자마다 분향은 못 쓴다.’ 하였다. 예문자(禮論者)들이 ‘선 참신(先參神) 후 강신(後降神)’이니 ‘선 강신(先降神) 후 참신(後參神)’이니 하는 이론(理論)이 있으나, 행사시(行祀時)에 감실문(龕室門)을 열고 선 재배(先再拜)한 후 출주(出主)하는 것을 선참신(先參神)이라 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참신(參神) 재배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영정(影幀)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가례증해(家禮增解)에 보면 ‘주자(朱子)도 어장자영정(於長子影幀)에 매치전(每致奠)에 불성설(不盛設)하였다’라는 문구(文句)가 있으니 영정(影幀)에도 치제무방(致祭無妨)하다. 우암(尤庵)은 ‘평소(平素) 소기지물(所嗜之物)은 불가전폐(不可全廢)니 삼년상내(三年喪內)에는 구육산채(拘肉山采)라도 용지무방(用之無妨)이라’ 하였다. ‘제유부정(祭有不淨)’하니 초상이 났을 때 장전(葬前)이면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고(폐제廢祭). 아기를 낳을 때(산고(產故))는 삼일(三日) 이내(以內)면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각거(各居) 할 때는 상관이 없다.

명재(明齋) 윤증은 말하기를 시조제사(始祖祭祀)에는 사성(賜姓) 관계로 성(姓)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사문(祀文) : 축문(祝文)에 초현관(初獻官)의 성명을 쓰는 것이 가(可)하다고 하였다. 산신제(山神

제)는 반드시 제사칠상(祭祀撤床)과 동시에 지내는 범이나 일강(一崗)에 누대묘소(累代墓所)가 있으면 각묘제사(各墓祭祀)를 마친 뒤에 최고위묘좌편(最高位墓左偏)에 설석(設席)하고 지내라고 하였으며 묘사(墓祀)보다 먼저 산신제(山神祭)를 올리는 것은 망발(妄發)이라 하였다. 그러나 묘소거리(墓所距離)가 멀어서 다시 제물(祭物)을 갖추어 돌아가기가 어려운 곳은 원위(元位: 최고 highest) 제사(祭祀)를 마친 직후에 올리는 것도 무방(無妨)할 것이다.

산신제(山神祭)에 선토제(先土齋)니 하는 논란이 있으므로 예문(禮文)을 이기(移記)하여 둔다. ‘주문 공가례(朱文公家禮)에는 ‘사토지안주자대전집유 사시제대부(祀土地按朱子大全集有四時祭大夫) 묘제후토제(墓祭祭后土則時祭) 제토지(祭土地) 역제지선야(亦禮之宣也) 금의제의(의어후(今擬祭儀於後)’라 하였고 사례(四禮)의 묘제의(墓祭儀)에는 ‘묘상분여제지(墓上每分如時祭之) 품_gen설어 육미연(品更設魚肉脚米麵) 식이제후토(食以祭后土)’라고 기록되어 있다.

산신제(山神祭)는 자기 조상의 영세(永世)를 위탁한 산신(山神)에게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또 앞으로의 수호도 부탁하는 의미가 있어서 옛부터 ‘선토제(先土祭), 후토제(後土祭)’를 논란하였을 만큼 중요한 제사이다. 그러므로 원위산소(元位山所) 상부 좌편(上部左偏)에 터를 닦아 두는 것이 통이며 그 행사(行祀)도 반드시 제주(祭主)가 올리도록 하고 다른 제관(祭官)에게 대행시켜서는 결례(缺禮)이며 또 제수도 몇 가지를 간략하게 진실함은 더욱 잘못이다. 예문(禮文)에도 매분여제지(每分如時祭之) 품_gen설어 육미연(品更設魚肉脚米麵) 식이제후토(食以祭后土)’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동춘(宋同春)이 김사계(金沙溪) 한데 후토제(后土祭)를 묘제(墓祭) 전에 지내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사계(沙溪)는 ‘나는 우리 선조세전(先祖歲薦)의 묘제(墓祭)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제후(墓祭後)에 후토제(后土祭)를 지내는 것이 옳은 줄 믿으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니까 그 렇소’라고 하였고, 또 손우(遜愚)는 말하기를 ‘예로부터 오사(五祀)의 예제(禮制)가 모두 그곳 신(神)에게 먼저 지내는데 어찌 후토제(后土祭)만 다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 조선(祖先)을 보호하여 주고 있는 토신(土神)이니까 묘제(墓祭)에 앞서 후토제(后土祭)를 올리어야 옳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상반되지만 후토제(后土祭)는 앞에서 제후(墓祭) 직후에 올리고 제묘(墓祭) 때와 같은 제수를 쓰고 또 제주(祭主)가 직접 올리되 분향(焚香)은 ‘않는다.’ ‘한다.’의 양설(兩說)이 예서(禮書)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

◆며느리권씨 일전1

불굴의 절부節婦 단계당丹溪堂 권씨 權氏 이야기

산청군 단계리에 한옥으로 된 마을이 있고 여기에는 권씨고도 있지만 용답정사(龍潭精舍)라는 순천 박씨 용답 박이장(龍潭 朴而章, 1547-1622)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가빈(家貧)에는 사현자(思賢妻)하고 국란(國亂)에는 사양신(思良臣)이라는 것처럼 이 박이장의 가문이 절손하지 않고 부흥한 것은 후손 중 권씨며느리의 엄청난 희생과 간난을 극복하는 의지에 있음을 알고 작은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순천 박씨 용답 박이장은 조선시대 이조정랑, 흥문관부승교,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자는 숙필(叔彬), 호는 용답(龍潭)·도천(道川). 박한하(朴漢何)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창봉 박식(朴埴)이고, 아버지는 승지 박양좌(朴良佐)이며, 어머니는 성산박씨(星山裴氏)로 별좌(別坐) 배은(裴垠)의 딸이다. 그는 어려서 가학(家學)을 수업하고, 23세에는 조식(曹植)을 찾아 덕산(德山)에 강으로, 1572년(선조 5) 사마시 향시(鄉試)에, 이듬해 사마시 회시(會試)에 합격하였다. 1574년 노수신(盧守信)을 찾았다. 성기학을 깊이 연구하였다. 한 때 영승전찰봉(永崇殿參奉)으로 나갔으나 곧 사직하고 돌아와 학문에 몰두하였다. 1586년 별시 문과에 갑과로 급제해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흥문관수찬(弘文館修撰)·교리(校理) 등을 지내고 1591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를 다녀왔다. 임진왜란 때 김성일(金誠一)의 주청으로 종사관이 되어 크게 활약하였다. 1593년 10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지제교(知制教)·사간원정(司諫院正言)을 지내고 다음 해 이조정랑, 이어서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를 겸직하였다. 1595년 이조정랑·흥문관부승교(弘文館副應敎)를 거쳐 1599년 사간원사간·사헌부집의(司憲



府執義)에 있을 때 흥여순(洪汝諱)을 탄핵하였다. 1601년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상의원정(尙衣院正)을 지내고 이듬해 사헌부집의·흥문관직제학 겸 시강원보덕(弘文館直提學兼侍講院輔德)·동부승지·첨찬관을 역임하였다. 당시 유영경(柳永慶)파인 소북(小北)으로서 반대 세력을 비방, 탄핵하였다. 1603년 동지정사(冬至正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고, 대사헌·이조참판·흥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을 지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저승(鄭仁弘)을 논계하였다. 이듬해 대사간이 되고, 이어 동지춘추관사·대사성을 거쳐 다시 대사간이 되었다. 1615년 폐모론이 일어나자 이를 반대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다가 죄되었다. 그 뒤 성주로 내려가 저술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경상도 초계(草溪)에서 죽었다. 문장에 능했으며, 특히 시에 이름이 있었다. 성주의 청천서원(晴川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술로는 “용답집(龍潭集)”, “정서절묘(經書節要)”, “육경여해(六經蠡海)”가 있다.

이 정도로 절나가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동시대에 인근에 안동 권씨(權氏) 1547-1622, 76세)의 증손자 박성주(朴聖周)가 있고 단계당 권씨는 그의 며느리이고, 고손자 박홍원(朴弘遠)의 아내가 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지금 이 단계당 마을의 한옥군은 모두 이 단계당 권씨의 불굴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신사임당을 모범으로 보지만 영양 두돌마을의 안동장지 장계향에 비길 수가 없고, 장계향 또한 이 단계당 권씨의 간난과 거센 운명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공교롭게도 장계향의 가장 아끼던 아들 이현일(李顯一)이 조판서가 단계당 권씨의 증조부 권도의 신도비문을 썼으니 이 또한 보통 인연은 아니다. 언젠가 이 세 여인의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간단히 언급하자면, 신사임당은 부유한 집안에 무남 삼녀집안



단계당 권씨의 재실 앞 차성문(경남 산청군 신등면 생비량면 독골)

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율곡이라는 불세출의 자식을 두었으나 부부간에는 별로였고 사대부적 마님의 스타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장계향은 정말 다크하여 아들이 여섯, 딸이 둘 이요, 부부가 나이 차이는 나고 재취로 들어갔지만 전부 잘되고 다복했다. 물론 그녀의 노력도 크고 흘렀다.

그럼 이 단계당 권씨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말 가시발길을 헤치고 한 가문을 절멸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회생시킨 것은 인간승리인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단계당 권씨 나이가 열여덟에 시집을 가고 남편 박홍원의 맏형인 박수원이 스물세 살의 나이로 죽는다. 수원의 아내 정씨는 어린 아들 형제를 기우다가 그 어린 것들을 잊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리니 큰 동서 정씨는 시아주버니를 잊고 4년 뒤에 자결한 것인데 이 때 단계당 권씨의 나이는 스물둘이다.

2년 후에 시아버지 박성주가 죽는다. 박성주도 아들, 며느리, 손자가 죽으니 삶의 의욕을 잊었을 것이다. 집안에는 단계당 권씨 부부와 자식뿐이었다. 그로부터 8년 뒤가 숙종44년 무술년(1717년)에 마을에 돌립병이 돌아 남편 박홍원과 아이들도 죽는다.

이제 남은 건 단계당 권씨와 네 살된 아들 박상제 하나이니 단계당 권씨의 나이는 서른두 살. 이 막마하고 처연한 상황에서 이제 시고조부 박이장의 후대도 그 마지막을 고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때 단계당은 박상제를 등에 업고, 손에는 가보 교지(教旨)보자기 하나만 들고 친정마를 단계리로 들어간다. 단계리에서 집안을 일으켜 살아가면서 외아들 상제를 보고 훈육하기를 “너는 학업과 일에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리하여 너의 백부의 뒤를 이어아만 우리 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고는 “아름다운 말”, “착한행실”이 담긴 글들을 한글로 옮겨서 아들 상제를 가르치기를 계획하고 있다.

외아들을 아무것도 없는 큰집에 양자로 보냈으니 정자 자신의 뒤를 이어갈 아들은 없으니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그 마음은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제 손자가 셋이 나오니 둘째 손자 박문혁이는 자신의 뒤를 이으라고 하였다. 단계당은 65세가 되어 별세한다. 손자 둘은 시아주버니 가계로 가고 하나는 자신의 가계를 잊게 한다.

별세하는 해에 태어난 막둥이 손자 박주경(후에 박문경)이 훗날에 진사시에 올랐다. 진사 박주